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뜻심 (행 4:29-31)

I. [지난 메세지] 하늘의 권위에 기대어 삶 (행 4:7-12)

- A.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으로부터 인간의 권위를 사용하여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지 하나님의 뜨거운 부흥의 불에 찬물을 끼얹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격 논란),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을 선포하며 (행 4:8-10) 시편 118편을 통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 우리는 참된 왕이신 하늘의 권위에 기대어 담대하게 서야 한다.

¹¹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 118:22; 막 12:10-11; 벰전 2:7) ¹²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행 4:11-12)

II.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뜻심

- A. [상황 정리]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이를 순식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고, 이일로 인해 이제 초대 교회는 2만명이 넘는 큰 공동체로 성장하게 된다. 당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감옥에 갇혔고, 다음 날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었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권위에 휘말리지 않았다.
- B. **이상히 여기며:** 산헤드린 멤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큰 저항 없이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분위기는 그들이 기대하던 것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위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일은 그들의 손을 벗어난 상태였다.

¹³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¹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¹⁵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 ¹⁶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행 4:13-16)

- C.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걷고 뛰게 되었다는 기적의 소식은 이미 예루살렘 모든 이들에게 알려졌다. 아마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의 저녁 식사의 대화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에 기뻐하며 기대감과 감격을 말하고 있었을 것이다 (행 4:21). 이제 사도들이 할 일은 이들에게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선포하는 일이었다!

²¹ ...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행 4:21)

- D. **위협하여 ... 경고하여:** 헬라 원문은 “위협하고 위협하여 = 엄히 위협하여”라는 표현으로 2번이나 강조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과 동일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경고였을 수도 있다.

17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흠정역: 엄히]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흠정역: 명령하니라] (행 4:17-18)

- E. 산헤드린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다”.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를 가진 회의체였고, 이들은 사도들에게 법을 제정하여 금지하듯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 (참고. 행 5:28). 사단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를 사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어떻게든 틀어막기를 원했다.

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엡 6:12-13)

- F.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이후 40일의 시간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내며 모든 초점이 하늘에 맞춰져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인생들의 눈 앞에 실패로 보일 수도 있었고, 혹은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을 이기신 분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 (요 16:33).

19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행 4:19-20)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 G.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을 직접 거부하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산헤드린에게 어떤 결정이 옳은지를 생각해보라고 오히려 물어본다. 나면서부터 앓은뱅이였던 자가 그들과 함께 서 있었고 (행 4:14), 따라서 이는 모든 이들에게 너무도 쉬운 질문이었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 H. 산헤드린에게는 메시아를 알아보는 일보다 로마와의 정치적 입장, 이스라엘 안에서의 종교적 입장, 자신들의 탐욕에 근거한 재정적 입장이 중요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복음 외에 수만가지 대안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복잡한 이유를 설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다.

- I.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산헤드린은 어떻게든 난리가 나지 않기 위함이라는 인간적인 상황을 들이대며 사도들을 흔들고자 하였지만, 사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상황에 집중함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뜻심이 필요하다.

III. 사도들의 시편 2편 기도, 우리들의 기도로

- A. **초대 교회의 기도회:** 초대 교회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있는 동안 그들을 위해 열심으로 중보했을 것이다. 산헤드린의 위협(행 4:17-18)을 전해들은 이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 기도한다. 초대교회도 어려우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했다.

23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 (행 4:23-24)

- B.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 시편 2:1-2절의 말씀을 하셨음을 상기시켜 드리며 (25-26절), 이 일이 당시의 헤롯 안디바 왕과 로마 관원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로마 병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간구한다 (27절). 초대 교회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린다 (28절).

24 ... 대주재여 (=주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25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분)이로소이다 27 과연 헤롯(군왕)과 본디오 빌라도(관원)는 이방인(로마인, 병정들)과 이스라엘 백성(산헤드린, 리더십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행 4:25-28)

- C. 시편 2편은 이렇게 이방 나라와 열방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 (1-3절), 아버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왕으로 세우심으로 (6-8절) 그들을 모두 부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9절). 이들은 이 시편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이 시편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주시길 기도한다.

29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행 4:29-31)

- D. 이들의 기도를 시편 2편에 기록된 내용을 기반으로 압축해서 표현해본다면, “온 땅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곳에 드러내소서!”가 된다. 이를 위해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29절),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한다 (30절).
- E. 이 기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이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어 말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는 열왕들과 관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며 (1-3절), 이는 초대 교회에게 산헤드린이 명령한 것과 동일한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

17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흠정역: 엄히]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흠정역: 명령하니라] (행 4:17-18)

- F. 초대 교회가 했던 영적 전쟁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전하고 선포하며 드러내도록 부름 받았고, 이 세상 신은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려는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 (고후 4:4).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시고, 이 일이 전해지는 곳마다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후 4:4)

- G. [참고] 사도 행전에서 베드로는 설교 때마다 수많은 구약의 예언 뿐만 아니라 시편을 인용하며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는 시편이 베드로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암송되고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사도행전에는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시편 구절을 인용한다.

행 1:20절	행 2:25-36절	행 4:11-12절	행 4:25-28절
가룟 유다 대신 맛디아를 사도로 세울 때	오순절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도들이 풀려난 뒤 모여 기도할 때
시편 69:25절, 109:8절	시편 16편 / 시편 110편	시편 118편	시 2편

IV.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초대교회

- A. 우리는 초대 교회에 은혜가 넘치면서 자발적인 나눔이 넘치는 공동체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은혜가 넘쳐서 자신의 소유 중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눴다. 부활과 생명의 소망이 부여되고 넘친 공동체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된다.

³²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³³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³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³⁵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행 4:32-35)

- B. 아나니아와 삽비라

³⁶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³⁷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 C. 베드로의 그림자

¹²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¹³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¹⁴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¹⁵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¹⁶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행 5:12-16)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정점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도록 섬길지 세상 권세로 부릴지 잘 결정해야 한다.

A.

B.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한 선택은 사람들의 눈에 실패나 하찮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사람들 눈에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고 믿어진다. 하지만 순종의 즐거움을 알며, 우리 삶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간다.

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 10:28)